광주·전남 수출기업 75% “내년 수출 악화되거나 비슷”

광주상의 94개 기업 전망 조사…절반, 올 실적 전년보다 줄어

지정학적 리스크 여전하고 미국의 자국보호주의 정책 등 우려

지역 수출 기업 10곳 중 7곳이 내년도 실적이 올해보다 악화되거나 비슷할 것으로 예측했다. 또 올해 수출 기업의 절반은 전년보다 실적이 감소했다. 트럼프 정부 2기 출범과 여전한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 유가와 원·달러 환율이 고공행진중인데다 비상계엄·탄핵 실패 등에 따른 정치적 혼란까지 더해지면서 지역 수출기업들의 경영난이 가중될 전망이다.

9일 광주상공회의소가 운영하는 광주FTA통상진흥센터가 광주·전남 수출기업 94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 수출 전망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역 수출기업 43.2%가 수출액 감소를 예상했다. ‘비슷할 것’이라고 응답한 기업은 31.6%였고, ‘증가할 것’이라는 응답은 25.3%에 불과했다.

내년도 체감경기에 대한 전망도 수출액 예측과 비슷했다. ‘악화할 것’이라는 기업이 41.4%로 가장 많았고 불변은 34.7%, ‘호전될 것’이라는 응답율은 24.2%였다. 수출 악화를 예상한 기업들이 꼽은 정치적 요인은 ‘미국의 자국보호주의 강화와 대미무역 압박’이었다.

경제 요인으로는 ‘세계 경제 침체, 인플레이션, 환율 변동, 원자재 가격 상승’ 등을 언급했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중동 갈등, 한반도 긴장 증가 등으로 무역과 경제 상황 악화와 같은 지정학적 요인도 걱정거리로 꼽혔다. 이밖에 각국의 수입 규제 강화와 무역환경 변화 요인도 수출 실적 악화가 예상되는 원인으로 꼽혔다.

올해 지역 수출 기업들이 직면한 주요 리스크 요인으로는 ‘주요국 경기 위축(49.5%·46개사)’이 가장 높은 응답율을 기록했다. 뒤이어 ‘유가·환율 상승(14.7%·14개사)’, ‘미국 대선 결과(12.6%·12개사)’, ‘중국 경제 성장 둔화(9.5%·9개사)’,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8.4%·8개사)’ 순이었다.

올해 지역 수출 기업들의 가장 경영상 어려움은 ‘원자재가 상승(31.6%·30개사)’이었다. 이어 ‘신규 판로 개척 애로(21.1%·20개사)’, 중국의 밀어내기식 수출과 중동 정세 불안에 따른 ‘물류비 상승(14.7%·14개사)’도 상위권에 올랐다. 이밖에 ‘인건비 상승(12.6%·11개사)’, ‘대출금리 부담(6.3%·6개사)’등도 겪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올해 어려움은 겪은 지역 수출기업들은 비용 절감 등 긴축경영으로 위기를 극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 기업들은 34.4%(54개사)가 긴축 경영으로 대응에 나섰고 ‘거래처 관리 강화(22.3%·35개사)’와 ‘거래처 다각화(20.4%·32개사)’ 등으로 대처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무엇보다 수출 기업들의 큰 걱정거리 중 하나인 트럼프 정부의 출범에 따른 영향에 대해 기업들은 ‘관세 증가(52.6%·49개사)’와 ‘달러 가치 상승(50.5%·48개사)’를 예측했다. 이어 ‘친환경 정책(9.5%·8개사)’등도 수출 환경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봤다. 이 같은 어려움 속에서 지역 수출 기업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정부 지원책으로 ‘정책자금 지원 확대’(52.6%·49개사)’와 ‘환율 및 물가 안정(50.5%·47개사)’이 시급하다고 답했다.

또 ‘신흥시장 개척 지원(30.5%·29개사)’, ‘수출규제 완화(15.8%·15개사)’, ‘수출정보 및 정책 안내(12.6%·12개사)’등도 필요하다고 답했다. 강조병 광주FTA통상진흥센터장은 “이번 조사를 통해 광주·전남 지역 수출기업들이 직면한 도전 과제와 지원 요구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며 “글로벌 경기 위축과 원자재가 상승, 환율 변동 등 대내외적 요인이 기업 경영에 큰 부담을 주는 상황에서도, 지역 기업이 위기를 기회로 바꾸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지난해 연평균 가구 소득 광주 3.5% 전남 8.5% 늘었다

각각 6573만·6609만원

가계 부채는 0.3%·6.3% 증가

지난해 광주와 전남지역 가구들의 연평균 소득이 전년 대비 각각 3.5%, 8.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가구 소득 증가로 광주·전남 모두 비수도권 평균 소득을 넘어섰지만, 여전히 전국 평균에는 미치지 못했다. 특히 전남 가구소득은 지난해 대폭 상승해 전국 시·도 가운데 8위를 기록하면서, 지난 2012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한자릿수에 진입했다.

9일 통계청과 한국은행, 금융감독원이 동시 발표한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광주시 가구 연평균 소득은 6573만원으로 전년(6349만원) 대비 224만원(3.5%) 증가했다. 같은 기간 전남 가구 연평균 소득은 6093만원에서 6609만원으로 516만원(8.5%) 올랐다.

전남은 지난해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실질 증가율로도 3.0% 증가해, 가구 소득 전국 8위 도시로 올라섰다.

연평균 가구 소득은 세종(9617만원)이 가장 많았고, 경기(8231만원), 울산(7853만원), 서울(7696만원), 대전(7138만원) 순이었다. 전남이 8위, 광주는 9위에 머물렀다.

특히 전남의 경우 가구 소득 상승률이 전국 평균 증가율(6.3%)보다 2.2%포인트(p)나 높았다. 이는 전남지역의 취업자가 증가하면서 근로소득이 증가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실제 전남은 강원, 전북 등 일부 지역과 더불어 근로소득 전국 최하위권을 기록해왔지만, 지난해 기준 3730만원으로 경남, 경북을 제치고 부산과 비슷한 수준으로 대폭 증가했다.

광주·전남 가구 부채는 낮은 수준이었다.

광주시 가구 부채는 올 3월말 기준 6498만원으로 전년(6478만원) 대비 0.3% 증가했다. 광주시 가구 부채는 7개 특·광역시 가운데 가장 적었다. 부문별로 담보대출과 신용대출을 포함한 금융부채는 5200만원으로 가장 낮았고, 임대보증금은 울산(1126만원)에 이어 두번째로 적은 1297만원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전남 가구 부채는 5471만원으로 전년(5146만원)보다 6.3% 늘었다. 가구 부채는 전국 17개 시·도 중 강원(5253만원)이 가장 낮았고, 경북(5373만원), 전남(5471만원), 경남(5741만원) 등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가계금융복지조사는 자산, 부채, 소득, 지출 등을 통해 각 가구의 재무 건전성을 파악해 사회 및 금융관련 정책과 연구에 활용하기 위해 전국 2만개 표본가구를 선정하고 실시되는 통계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한전 에너지 신기술 규제프리 실증존 조성 협약

에기평가원과 실증존 운영 등 협력

한국전력공사(한전)가 지난 3일 서울시 웨스틴조선 호텔에서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에기평)과 ‘에너지 신기술 규제프리 실증존 조성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

이번 업무협약은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를 중심으로 규제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 ‘규제프리 실증존’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전과 에기평은 규제특례 제도 등을 활용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규제프리 실증존 기획과 운영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규제프리 실증존’은 기존의 규제특례 제도인 ‘규제샌드박스’와 ‘규제특구’의 실증 범위가 과제별로 특정 지역에 제한되었던 것과는 다르게, 지역 단위에서 다양한 신기술 간 복합적인 대규모 실증이 가능한 제도이다. 이를 통해 신기술의 신뢰성과 안전성 확인 및 트랙 레코드 확보가 가능해져 신기술 상용화도 앞당겨질 것으로 한전은 기대하고 있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전남테크노파크

전남드론산업 발전 방안 모색 비지니스 네트워킹 워크쇼

전남테크노파크 우주항공산업센터가 지난 5일 지역 드론산업 협력 강화 및 발전 방안 모색을 위해 ‘전남 드론산업 비즈니스 네트워킹 및 협력방안 수립 워크숍’을 개최했다.〈사진〉 이날 워크숍에는 조재웅 전남도 신성장산업과장, 박정현 고흥군 단장 등 정부 관계자를 비롯해 (주)유큐브, (주)해오름드론항공, (주)휴인텍, (주)월드콥터코리아, (주)더블유원 등 전라남도내 드론기업 관계자 총 5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워크숍은 고흥군 항공인프라 및 드론 농공단지 사업 설명회를 시작으로, 전남도 드론산업 발전방안 협의 간담회, 드론기업 간 네트워킹 강화 및 협업 논의, 사업 추진 시 애로사항 점검 및 해결방안 논의, 자유 토론 등의 순서로 진행되었다.

전남도는 고흥 드론센터를 중심으로 드론산업 생태계를 강화하고 기업 역량을 높여 전남 드론산업을 글로벌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발전시키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고흥군은 드론특별자유화구역 지정 이후 다양한 실증 사업과 연계해 드론기업을 적극 육성하고, 드론기업이 지역에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이어갈 방침이다.

고흥군은 이미 전국 최대 규모인 직경 22km의 비행시험 공역과 국가 종합비행성능시험장 등 우수한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다. 오익현 전남테크노파크 원장은 “이번 워크숍은 전라남도 드론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마련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 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을 통해 전남이 국가 드론산업의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정책대상’ 정책상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지난 6일 한국정책학회가 주최한 ‘제13회 한국정책대상’에서 정책상을 수상했다.

이번 수상은 aT가 농업의 생산단계부터 유통, 소비 등 사업 전반에 걸친 디지털 혁신을 통해 대한민국 농업의 디지털 전환을 이끈 성과를 인정받은 결과다.

한국정책대상은 각 공공기관들이 한 해 시행한 우수 정책사례들을 발굴하고, 국민들에게 공유하기 위해 지난 2010년부터 시행된 포상 제도다. 올해는 정책의 창의성, 추진체계의 적절성, 정책의 파급효과 등을 두루 평가해 8개의 수상기관을 선정했다.

aT는 ▲민간 플랫폼 ‘만개의 레시피’와 협업해 가격하락 농산물 소비를 촉진하는 ‘알뜰한끼’ 서비스 제공 ▲세계 최초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 개설 운영을 통한 유통구조 혁신 ▲빅데이터 활용 맞춤형 경영 컨설팅 서비스로 외식업체 경영난 극복 지원 등 사업 전반에 걸친 디지털 혁신으로 농수산식품 분야의 주요 현안 해소에 기여한 성과를 인정받아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홍문표 aT 사장은 “aT가 보유한 농수산식품 산업 빅데이터와 디지털 인프라를 기반으로 장바구니 물가 부담 완화 등 국민 먹거리 분야 현안 해소에 기여한 성과를 인정받은 뜻깊다”며 “앞으로도 디지털 혁신을 통해 농수산식품 분야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광주신세계 라이프스타일 브랜드 ‘메리 위글리마스’ 프로모션

생활용품 등 최대 81% 할인

광주신세계가 오는 9일부터 29일까지 라이프스타일 브랜드 ‘위글위글’에서 최대 81% 할인혜택과 구매 금액대별 선착순 선물을 증정하는 ‘메리 위글리마스(MERRY WIGGLEMAS)’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위글위글은 광주신세계 플레이 스팟에 오락실 분위기의 아케이드 매장 콘셉트로 만들어져, 300여개 이상 아이템으로 고객들에게 구매와 재미 두가지 경험을 선사하고 있다.

행사 기간 중 최대 할인율을 기록한 제품은 ‘펄프 행주세트’로 기존 1만5000원에서 81% 할인된 2900원에 구입할 수 있다. 또 인기품목인 ‘투웨이 보냉백(M)’은 41% 할인하는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다만, 할인율이 큰 만큼 수량 소진 시 조기 품절될 수 있다.

위글위글은 이번 프로모션을 통해 구매 금액대별 선착순 선물 증정 이벤트도 진행한다. 이벤트는 8만원 이상 구매 고객들을 대상으로 ‘2025년 위글위글 탁상달력’ 또는 ‘레트로 에디션 피크닉백’, 12만원 이상 구매 시 ‘손톱깎이 세트’, 15만원 이상 구매 시 ‘버터 쿠키 세트’를 증정한다. 더불어 역대급 한파가 예보된 올겨울을 맞아 홈웨어 제품을 구매할 시 특별 사은품도 증정할 계획이다.

파자마 세트, 목욕가운, 라운지 로브 등 홈웨어는 최대 32% 할인하며, ‘트윈베어 패턴양말’을 랜덤으로 선착순 증정한다.

또 크리스마스 시즌 한정으로는 ‘랜덤 기프트백’을 한정 판매한다. 오는 20일부터 29일까지는 무료선물 포장 이벤트도 함께 진행할 계획이다.

이정일 광주신세계 플레이 스팟 팀장은 “크리스마스와 연말을 맞아 위글위글에서 대대적인 할인을 준비했다”며 “플레이 스팟 입구에 자리잡은 위글위글에서 선물을 합리적인 가격에 준비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윤영 기자 zzang@

11월 광주·전남 주식 거래량·대금 모두 증가

지난달 광주·전남지역 투자자들의 주식 거래량이 유가증권시장(코스피), 코스닥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코스닥의 증가폭이 컸는데, 매수보다는 매도세가 더 컸던 것으로 집계됐다.

9일 한국거래소 광주혁신성장센터가 발표한 ‘2024년 11월 광주·전남지역 증시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광주·전남지역 주식 거래대금은 6조783억원으로, 전월(5조4314억원) 대비 11.9% 증가했다.

광주·전남 투자자들은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 모두 매도 증가세가 강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코스피 매수거래대금은 1조8234억원으로 전월(1조7622억원) 대비 3.5% 늘었고, 매도거래대금은 1조6453억원에서 1조7873억원으로 8.6% 증가했다.

코스닥 매수거래대금은 1조2321억원으로 전월(1조174억원)보다 2146억원(21.1%) 많았고, 매도거래대금은 1조2355억원으로 전월(1조66억원)에 견줘 2289억원(22.7%) 늘었다.

지역 투자자들의 매도세가 강했던 배경에는 지난달 초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에 대한 기대감으로 코스피 증가세보다,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의 깜짝 2연속 기준금리 인하 결정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달 광주·전남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거래한 주식은 대장주 ‘삼성전자’였다. 지역 투자자들은 삼성전자를 3985억7518만원(매수 2242억원·매도 1742억원)사고 팔았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화순 부추쌀국수 쌀가공식품 품평회 우수상

농협 전국 705점 출품 16점 선정

화순지역 쌀국수 제조업체가 농협 주관으로 열린 쌀가공식품 품평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

9일 농협 전남본부에 따르면 파프리카쌀국수㈜가 생산하는 부추쌀국수는 지난 6일 개막한 ‘2024 우리쌀·우리술 K-라이스페스타’에서 열린 ‘우리술·쌀가공식품 품평회’에서 우수상을 받았다. 지난 9월부터 11월까지 두 달간 열린 ‘우리술·쌀가공식품 품평회’에는 전국 423개 업체가 705점을 출품한 가운데 16점이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전남에서는 우리술 14개 업체, 쌀 가공식품 10개 업체가 참여했다.

부추쌀국수는 지역농산물인 화순 햅쌀을 사용하고 동결 건조된 부추와 반죽해 맛과 품질 면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부추쌀국수 뿐 아니라 파프리카쌀국수·사천쌀짜장·해물쌀짬뽕 등 우리쌀을 이용한 다양한 제품을 생산해 판매하고 있다. 업체측은 받은 상금 전액을 화순군에 장학금으로 기부할 예정이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2360.58 (-67.58)
↓	코스닥	627.01 (-34.32)
↓	금리 (국고채 3년)	2.579 (-0.041)
↑	환율 (USD)	1433.20 (+14.00)

〈오후 5시 55분 기준〉